

성산면,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군산시, 사업비 134억원 확보... 귀농귀촌인 위한 귀농·귀촌 타운 조성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지가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공간의 재생을 목적으로 악취, 소음, 오폐수, 진동 등으로 인해 농촌 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철거·이전) 및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34억원(국비 67억원, 도비 20.1억원, 시비 46.9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장기방치 공장인 (주)대평세라믹스의 부지(4만7,635㎡)를 매입해 공장 및 기숙사 건물 7동을 전면 철거하고 개신사업에 들어간다.

먼저 해당 부지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

원과 관리를 위해 귀농·귀촌 교육장과 임시주거시설, 행정지원센터, 커뮤니티 시설 등 귀농·귀촌타운(1만 9,365㎡)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인근 마을 주민을 위한 마을공원과 산책길도 함께 만들게 된다.

이번 공모는 농촌지역의 장기방치 공장을 우드칩 공장으로 업종 변경해 운영하려는 기업과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치열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군산시가 나서면서 진행되었다.

매마침 군산시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관내 영유아와 임신부,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공급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기업과 주민의 동의하에 군산시가 신청하게 되었다. 이후 신청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정을 통해 최종 결정이 되었다.

한편, (주)대평세라믹스는 2022년 11

월, 군산시에 벽돌공장이었던 해당공장을 우드칩 생산공장으로 업종 변경을 신청했으나 군산시가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생산과 군산시벽거리조합지원센터를 통한 공급체계 보호를 위해 불승인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결국 사업주는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공장업종 변경 불승인 처분 취소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주의 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군산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계기로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초석을 다지고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맞추어 해당지역을 마을보호지구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하여 숲터, 일터, 쉼터가 있는 곳으로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판근기자



익산시가 익산교육지원청, 원광보건대학교와 협력해 지역기반 유아 공교육 강화에 나선다.

지역 주도 유아 공교육 강화

익산시-익산교육지원청-원광보건대,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가 익산교육지원청, 원광보건대학교와 협력해 지역기반 유아 공교육 강화에 나선다.

시는 15일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성환), 원광보건대학교(총장 백준홍)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백준홍 원광보건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은 지자체·교육(지원)청·대학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주도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아를 위한 우수한 교육 모델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익산시와 익산교육지원청, 원광보건대학교는 교육부 공모에 공동으로 참여해 지난달 최우수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2026년까지 3년간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15억 원을 확보했다.

세 기관은 유아교육·보육 지역협력 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해 사업을 지원하기로 협의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내 유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지역 기반 유아 공교육 강화 및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지역 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 △거점 어린이집 및 거점 유치원 지정 운영 △교사 연수 및 선도교사 양성 △학부모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익산시가 보유한 우수한 시설들과 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양질의 보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익산형 근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익산시가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익산형 근로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지역에 추수를 두고 근로 중인 청년들도 신청일 이전에 익산시에 접입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8~39세 청년이다. 올해도 500명을 신규 참여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익산 청년서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익산청년시청에 방문하면 된다. 기업일자리과로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익산=이재훈기자

익산시에 천연기념물인 '수달' 이 나타났다

금마저수지에서 3마리 발견... 하천 정화·친수공간 조성·생태프로그램 운영 등 결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이 익산 금마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서동생태관광지에서 포착됐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생태학습활동을 하던 한 시민이 금마저수지에서 수달을 발견하고, 촬영한 영상을 익산시에 제보했다.

영상에는 저수지 물가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수달 3마리의 모습이 담겨 있다.

수달은 족제비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크고 수중생활에 적합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낮에는 보금자리에서 쉬고 밤에 활동하며, 위험 상태에 놓이면 물속으로 잠복하는 습성이 있다.

이런 특성으로 외부에서는 쉽게 만나볼 수 없는 희귀 동물이며, 1982년 11월 전국 일원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2012년 7월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익산시는 금마저수지에 서동생태관광지를 조성해 하천 정화, 친수공간 조성,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수달의 발견은 시의 노력의 결실이 나타나는 증거이며, 앞으로 금마저수지가 생태관광지로서 더욱 가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생태연구가 유철선 박사는 "수달은 깨끗한 물과 먹이가 있는 곳에서만 서식하는 민감한 동물"이라며 "금마저수지가 풍부한 먹이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서식지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서동생태관광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청춘, 섬애타' 참가자 모집

군산시는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미혼남녀의 만남 행사인 '청춘, 섬애타' 참가자를 모집한다.

'청춘, 섬애타'는 바쁜 일상 등으로 만남의 기회가 적은 청춘 남녀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남녀 참가자들은 6월1~2일 1박 2일로 선유도 등 고군산군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소중한 인연을 찾게 된다.

군산시 역시 미혼남녀의 인연만들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1:1 스피드 데이팅, 포토마션, 연애특강, 선유도 액티비티 등을 준비해 사랑의 큐피드 로 만남의 준비를 갖추어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 가능한 미혼남녀는 군산시에 주소 또는 직장(자영업, 프리랜서 포함)을 둔 25세~39세(1985년생~1999년생)이며,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이메일이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번 미혼남녀 만남 행사는 연애·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여 결혼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과 2019년 추진 후 코로나 등으로 중단됐다 4년 만에 재개된다.

이현연 인구대응담당관은 "바쁜 일상으로 만남의 기회가 적은 청춘 남녀들에게 만남과 소통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청소식란을 확인하거나 시청 인구대응담당관(063-454-2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시, 로컬 히어로 육성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군산시 청년창업센터와 함께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로컬 히어로 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로컬 히어로 육성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며 신청지역은 5년미만의 기창업가와 예비창업가로 유형별 요건을 충족하는 6개 팀(개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5년 미만의 기창업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군산인 5년 미만 창업기업,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다.

특히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기치 창업가'를 말한다.

예비창업가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예정 사업장 소재지가 군산인 예비창업가, 로컬크리에이터 분야 창업가를 준비 중인 예비창업가에 한정한다.

로컬히어로 육성사업에 최종 선발된 6개팀(개인)은 최대 1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으며, '원스톱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상담 분야의 창업 전문기사와 1:1 매칭 컨설팅도 받게 된다.

여기에 더해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의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사업, '혁신성장촉진자금(최대 1억원)',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최대 5억원)' 등 연계 사업에도 참가 가능하다.

/군산=김판근기자

익산시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0일간 진행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

익산시의회에서는 선임한 조규대 대표위원을 비롯해 결산검사위원 7명은 법령 및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심도 있는 검사를 진행했다.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급급의 결산 등 익산시 재정운영 전반을 검사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세출예산 이월 지연,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 성과보고서 운영 철저 등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익산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다음 달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6월 중 제2회 정례회에 결산 심사·승인을 받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